

# 日本 原子力産業의 最近 動向

최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소의 立地難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日本의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이의 타개책으로 PA 활동의 강화와 함께 입지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와 그동안 동결됐던 석유화력의 신, 증설에 대한 재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日本의 최근 동향을 外紙에서 종합, 다음에 소개한다.

日本 通産省 자원에너지청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로 착공하는 원전 주변지역의 전기요금 할인을 내년도부터 현행의 약 15%에서 30내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 原電周邊地域の 電氣 料金割引 擴大

에너지청의 이러한 조치는 원전의 건설이 시급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신규 건설이 지연됨으로써 새로운 건설촉진책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할인제도의 적용대상은 앞으로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당해지역의 시, 읍, 면의 주민과 공장 등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인접한

시, 읍, 면까지 확대하는 제안도 있어, 이 문제는 8월중으로 결말이 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할인제도는 현재 운전중이거나 공사중인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시, 읍, 면과 인접한 시, 읍, 면의 주민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부의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에서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이 지역의 주민은 일단 다른 지역과 같이 전기요금을 지불하지만, 뒤에 교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금할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日本經濟新聞 8月11日)

## 보이는 原電으로 PR, 見學專用室을 設置

흰 콘크리트벽으로 둘러싸인 낮

선 원자력발전소의 이미지를 바꾸어놓자……. 최근 日本의 전력회사들은 견학자들이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원전시설 가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日本의 關西電力이 내년 2월에 운전될 개시하는 후쿠이縣의 원전에는 「See Through 방식」이라고 이름하는 견학시설을 설치하는 데 이어, 東京電力은 니가타縣에 건설 중인 원전에 내부가 보이는 견학루트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보이는 原電」이 입지난에 고민하는 전력회사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關西電力이 계획하고 있는 「See Through」 원전은 후쿠이縣에 건설 중인 오오이原電 4호기이다. 출력 118만kW로 작년 10월부터 시운전중에 있는 이 원전에 견학전용의 공간과 통로를 설치, 운전개시 후에야 유리창 너머 원자로건물 내의 연료보관장소와 터빈건물 내의 증기터빈 그리고 중앙제어실 등을 들여다보게 하는 계획이다.

東京電力은 니가타縣에 건설 중인 가시와사키가리와원전의 6, 7호기에 關西電力과 같이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견학루트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다. 이 6, 7호기는 96년과 97년에 각각 운전될 예정인데, 關西電力을 참고로 하여 1~2년 내에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원전에서 내부를 견학할 경우 방호복을 착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반인에게는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하



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전력회사에서는 공개적인 자세로 원전의 필요성을 PR해 나가는 발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日本經濟新聞 8月9日)

### 石油火電의 再設備을 檢討

日本の 전력업계는 사실상 그동안 동결됐던 석유화력의 노후설비를 폐기하고 새로운 설비를 하는 再設備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日本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에 따라서 석유화력의 신, 증설을 동결함과 동시에 석탄과 LNG로 연료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신규입지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되고 있는 石油火力の更新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전력업계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연구회를 발족시켜 향후 화력발전소의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은 「原子力重視, 脱石油」를 내걸었던 정부의 정책변경에도 관련되는 만큼 앞으로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연구회에서는 각 전력회사 공히 노후화한 석유화력발전소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연료전환이나 재설비의 가능성에 대하여 주로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79년 IEA의 권고로 그동안 신설이 중단됐던 석유화력의 재설비문제가 초점이 된다.

IEA의 권고는 신사협정이지만 日本이 가장 엄격히 지켜왔으며, 기존의 석유화력의 更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력업계로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배려하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가장 적합한 전원의 구성을 고려해 나간다. 그리고 각 전력회사의 의견을 취합, 최종적으로는 기존 석유화력의 재설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화력발전에 대한 정책의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하는 문제도 다루게 된다.(日本經濟新聞 8月12日) □